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安息을 위한 베갯모 디자인 연구

- 황칠나무 염색을 이용하여 -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産業 디자인 學科

夫 惠 禪

2015年 8月

安息을 위한 베갯모 디자인 연구

-황칠나무 염색을 이용하여-

指導教授 朴 炫 映

夫 惠 禪

이 論文을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6月

夫惠禪의 産業디자인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오 창 윤 印

委 員 이 광 진 印

委 員 오 철 훈 印

濟州大學校 産業大學院

2015年 6月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전통 베개와 베갯모의 이론적 고찰	3
1. 전통 베개의 이론적 고찰	3
2. 전통 베갯모의 이론적 고찰	8
III. 황칠(黃漆)과 황칠나무 염색	20
1. 황칠(黃漆)의 일반적 고찰	20
2. 황칠나무 염색	23
IV. 현대 베갯모의 디자인 경향	26
V. 작품제작 및 설명	29
1. 제작 배경	29
2. 제작 과정	30
3. 작품 설명	34
VI. 결 론	48
VII. 참고문헌	50

도 목차

도1. 무녕왕릉 목제베개	4
도2. 청자 상감 모란 구름 학 무늬 베개	4
도3. 청자 투각 연꽃 무늬 베개	4
도4. 녹유 도자 별무늬 베개	4
도5. 녹유 과도 물고기 무늬 베개	4
도6. 퇴침	7
도7. 장침(長枕)	7
도8. 골침(縞枕)	7
도9. 곡침(繡枕)	7
도10. 죽침(竹枕)	7
도11. 흑칠목침함(黑漆木枕函)	7
도12. 봉황문(鳳凰紋)	12
도13. 호문(虎紋)	12
도14. 학문(鶴紋)	12
도15. 압문(鴨紋)	12
도16. 호접문(胡蝶紋)	12
도17. 박쥐문(蝙蝠紋)	12
도18. 모란문	13
도19. 연화문	13
도20. 국화문	13
도21. 매화문	13
도22. 초화문	13
도23. 수복문	14
도24. 쌍희문	14
도25. 칠보문	15
도26. 태극문	15

도27. 칠보장생문(七寶長生紋)	16
도28. 십장생문(十長生紋)	16
도29. 십장생문(학과 소나무)	16
도30. 베갯모의 다양한 표현 기법	17
도31. 황칠나무와 잎모양	20
도32. 황칠 분비 모습	20
도33. 현대 보료와 사방침	27
도34. 색동문양을 응용한 침구	27
도35. 꽃문양을 응용한 침구	27
도36. 꽃자수 베개	28
도37. 나비자수 베개	28
도38. 모란, 나비자수베개	28
도39. 작가 고선희의 작품	28
도40. 작품 스케치(안식 2)	30
도41. 작품 밑그림(안식 2)	30
도42. 직물 재단(안식 2)	30
도43. 완성작품(안식 2)	30
도44. 정련한 명주	32
도45. 염재 세척후	32
도46. 염액 추출(30분)	32
도47. 염액	32
도48. 염색하기	32
도49. 건조(무매염)	32
도50. 매염제 만들기	32
도51. 매염하기	32
도52. 매염 후 세척하기	33
도53. 염색 완료	33
도54. 바느질하기	33
도55. 배접하기	33

표 목차

표1. 베갯모의 형태 분류	8
표2. 베갯모의 소재별 분류	9
표3. 자수베갯모에 사용된 자수 기법	18
표4. 황칠나무 염색 색상표	24
표5. 황칠나무 복합염색 색상표	25
표6. 황칠나무 염색 조건	31

작품목차

안식(安息) 1	35
안식(安息) 2	37
안식(安息) 3	39
안식(安息) 4	41
안식(安息) 5	43
안식(安息) 6	45
안식(安息) 7	47

A study on pillow end design for Rest

- A use of Dentropanax dyeing

Boo Hae Sun

*Industrial Art Design Major
Graduate School of Indus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Hyun young

Summary

The ways to release stress and to be calm have become diverse and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growth and change in this society.

Regardless of the ages, medicine plants or calmative herbs are easily found from historical literatures or documents. It means that "Rest" were very important part of human life even in the past. Sleep was the best behavior to be calm and relaxed for people in common. For that reason, pillow which is regarded a bridg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spiritual space was used gently by users. A pillow is regarded a precious goods of wishes for health and longevity, fecundity and evil spirits as well as a bedding.

In this study, it suggests the dyeability of Dentropanax which is one of the spontaneous trees in Jeju. Also, it has the purpose to design pillow and pillow ends in the view of modern.

I Have three main conclusions from this research study as

below.

1. I tried to prove the dyeability of Dentropanax so that a variety of colors were extracted by many experiments. Also, comfortable and soft feeling of color were extracted by the complex dyeing of other materials beyond the color of Korean typical *Obangsaek*.

2. This modernized pillow end designs were expressed with visual patterns which are felt comfortable in terms of the authentic Jeju calm by using Dentropanax leaves in various ways by adding *Ansik Hyang*.

3. The pillow ends have a three-dimensional effect combined Korean typical needle technique and Western needle technique(*Applique*). The patterns are not only sewed strongly and regularly but also curved softly.

The art work has unity and stability through simple and regular square arrangement and horizontal side division in the characteristic of patterns.

I hope this research study contribut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esigns using natural materials.

I. 서론

1. 연구목적

안식(安息)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편히 쉬다’, ‘휴식을 취하다’라는 의미이다.

인간에게 ‘쉽’이란 축적된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재충전하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 시간을 보내며 이 중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쉽(休)을 행하는 것이 취침이다.

사람이 하루 평균 8시간씩 잠을 잔다고 하면 인생의 1/3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 인간에게 잠은 자기의 신체와 뇌의 활동을 쉴 수 있는 가장 편한 휴식 시간이며 재충전의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위해 편안한 침구에 정성을 들이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남다른 공을 들인다.

베개는 예로부터 단순한 침구가 아닌 베고 자는 사람의 영혼과 내력이 깃든 물건으로 귀하게 여겨 사용자를 위한 무병장수, 다산, 잡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기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현대에 와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변화로 침구의 형태와 디자인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모습을 거의 사라지고 있다.

최근 나라마다 일고 있는 전통문화 고유성에 대한 관심은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에 대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디자인을 응용한 현대적인 침구의 디자인과 소재의 개발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자생식물인 황칠나무를 이용한 염색을 진행하여 염재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가족의 평안함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졌던 베개의 베갯모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베개와 베갯모의 이론적 연구, 황칠과 황칠나무 염색 연구, 작품 연구로 구성된다.

베개와 베갯모의 이론적 연구는 유물과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베개와 베갯모의 역사를 고찰하고, 형태와 재질, 문양에 따라 분류 정리하였다.

황칠의 일반적 연구는 황칠에 대한 옛 문헌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황칠의 역사와 약리효능(藥理效能)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 정리하였다.

그리고 황칠나무 염색 연구는 황칠나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염제의 농도별 염색실험, 다른 염료(染料)와의 복합염색 실험을 진행하였다.

작품 연구는 안식(安息)을 주제로 황칠나무 잎을 다양하게 조형화하고, 색상은 자연염색을 통해 부드럽고 안정된 색감을 사용하였다.

작품 소재로는 자연 염색으로 발색(發色)이 가장 좋은 명주를 사용하였고, 한지, 실크실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표현기법은 전통 베갯모의 입체적인 조각 표현과 나전칠기, 화각, 자수 베갯모의 다채로운 색의 배색을 응용하여 전통 바느질과 자수 기법을 변화시켜 표현하였다.

II. 전통 베개와 베갯모의 이론적 고찰

1. 전통 베개의 이론적 고찰

1) 베개의 개념

베개의 어원은 영혼을 안에 놓기 위해서 물건을 말아서 만든 것에 유래한다고 하며, 띠 등 긴 것을 베개로 하지 말라는 금기도 이에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베개는 개인의 영혼이 머무는 중요한 것이라는 본래의 모습이였다.¹⁾

베개의 사전적 의미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 머리에 괴는 물건’이다. 재질은 주로 직물이나 나무, 도자, 피혁, 나전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고, 그 속은 메밀껍질, 왕겨, 조, 털 등으로 채워 넣었다.

베개의 구성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머리가 향하는 곳으로 침두(枕頭), 침상(枕上), 침변(枕邊)이라고 하는 베갯머리와 겨, 조, 메밀, 나깨, 벚짚 같은 것을 넣어 단단하게 만드는 베갯속, 베개의 양 쪽에 대는 꾸밈새로 조그마한 널조각에 수를 놓은 형겅으로 덮어씌우는 베갯모가 있다.²⁾

베개는 사용 장소, 재료, 형태, 베갯모에 사용된 문양에 따라 명칭하였다.

2) 베개의 역사

한반도에서 실생활에 베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모본왕(慕本王) 4년(A.D. 51)조에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로 베어 사람이 혹 움직이든지 하면 죽이어 용서치 아니하니...”라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베개는 시신의 머리를 받치기 위하여 실생활에 필수적이었던 베개를 무덤에 사용한 것이다.³⁾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베개는 대부분 무덤에서 나온 것들이며, 재질은 목재와 석제로 되어있다. 이 중 사용자가 확실한 가장 오래된 출토유물로는 무녕

1) 종교학 대사전, 한국사진연구소, 1998

2)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3.

3) <http://www.portal.nrich.go.kr> 「고고학사전」

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목제 베개이다. 형태는 나무토막을 역사다리꼴 모양으로 다듬어 윗부분을 U자형으로 파낸 후 전면에 주칠을 하였다. 베개의 윗부분에 두 마리의 봉황을 서로 마주보게 붙이고 육각형의 거북등무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고, 그 안에 흰색, 붉은색, 검은색의 안료로 비천(飛天), 새그림, 어룡(魚龍), 연꽃, 인동(忍冬), 네이파리꽃을 그렸다.



도1. 무녕왕릉 목제베개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시대의 베개는 도자기 특히 청자 유물이 많다. 형태는 주로 직사각형,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머리를 누이는 곳은 포물선처럼 면과 선이 휘어들었다. 문양은 연꽃, 구름, 학, 국화 물고기 등이 시문되어 있다.



도2. 청자 상감 모란 구름 학 무늬 베개 도3. 청자 투각 연꽃 무늬 베개
(靑磁 象嵌 牧丹 雲鶴紋 枕) (靑磁 透刻 蓮花紋 枕)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도4. 녹유 도자 별무늬 베개 도5. 녹유 파도 물고기 무늬 베개
(綠釉星紋枕) (綠釉波紋枕)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에도 고려도경(高麗圖經) 제29권에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을 향초(香草)로 채우고 양쪽 마구리는 실로 꽃을 수놓았는데, 무늬가 매우 정교하고 붉은 잎으로 장식한 것이 연꽃잎과 같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원통형 모양의 베개와 자수 베갯모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

조선시대의 베개는 직물, 목재, 대나무, 도자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고, 현존하는 베갯모 유물로 미루어보아 직물로 된 유물이 대표적이다. 형태는 현대에도 사용하고 있는 원기둥모양으로 양쪽 마구리를 수를 놓아 장식한 베갯모를 대고, 속은 곡식껍질, 녹두, 조, 쑥 등 천연재료를 채워 넣었다.

3) 베개의 종류와 분류

베개의 종류는 사용 용도와 장소, 형태, 양쪽 마구리에 장식한 베갯모에 사용된 문양, 속재료, 만든 소재에 따라 분류한다.

(1) 용도별 분류

① 퇴침(退枕)

퇴침은 나무판을 붙여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후 양쪽 마구리를 붙이고 천으로 짠 베개이다. 남성용베개는 서랍을 짜 넣어 약이나 방향제를 넣었고, 여성용은 빗이나 화장용구를 넣었다. <도6>

② 구봉침(九鳳枕)

구봉침은 신혼부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혼인침이다. 베갯모의 문양은 한 쌍의 봉과 7마리의 새끼봉을 수놓아 부부의 백년해로, 자손번창의 기원을 표현하였다.

③ 장침(長枕)

장침은 머리를 받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팔꿈치를 괴는데 사용하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주로 안방이나 사랑방에 보료, 안석, 사방침과 함께 놓였다. <도7>

④ 국화침(菊花枕)

늦가을 국화를 따서 홍포(紅布)주머니에 넣어 만들었는데 베고 자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다.

⑤ 결명자침(決明子枕)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문양디자인Ⅱ-자수문양」, 대원사, 2004, p.193.

속재료로 결명자를 넣어 만든 베개로 눈이 밝아진다고 한다.

⑥ 녹두침(綠豆枕)

녹두를 주머니에 넣어 만든 베개로 베고 자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풍이 없어지며 눈이 밝아지고 특히 어린아이한테 좋다고 한다.⁵⁾

(2) 형태별 분류

① 골침(縞枕)

벚짚으로 6~8개의 골이 있는 직육면체를 만들어 직물로 싸고, 양쪽 마구리에 수베갯모로 장식한 베개이다. 베갯속을 각각 채워 이으면 골이 생겨 입체적으로 보인다. 골침은 전남 나주 특산물이다. <도8>

② 곡침(穀枕)

둥글고 가늘고 긴 주머니로 쌀겨를 넣어서 만든 것으로 베갯모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단다.⁶⁾ <도9>

③ 면침(綿枕)

긴 사각형 모양의 작은 포단을 몇 장씩 겹쳐서 그 겹치는 방법에 따라 베개의 높이를 조절한다.

④ 잣베개

형겉이나 색실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접으면서 계속 이어 붙여 원형으로 만든 후 양쪽 마구리에 붙여 장식하였다.

(3) 재료별 분류

① 죽침(竹枕)

대나무의 청량감과 탄력성을 이용하여 주로 여름용 베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도10>

② 목침(木枕)

나무로 만든 베개로 주로 여름철에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는 계층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서민층에서 사용하던 목침은 실용적이고 투박스럽고 모양도 단조롭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한국민속대관」, p.326.

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한국민속대관」, p.327.

다. 상류층에서 사용하던 목침은 세공이 뛰어난 공예품이 많다. <도11>

③ 도침(陶枕)

흙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베개를 만들어 구워낸 것으로 사용할 때는 그 위에 왕겨, 메밀 등을 채운 비단 주머니를 얹어 사용하였다.

④ 나전침(螺鈿枕)

나무판을 조각하여 조개, 소라, 전복껍질로 장식하고 흑칠하여 만든다.

⑤ 피혁침(皮革枕)

목침 표면에 소가죽을 입혀 만든다. 직사각형 모양이며 머리를 누이는 부분은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졌다.

⑥ 화각침(華角枕)

얇은 우각판(牛角板) 위에 도안을 그리고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의 호분(胡粉)을 써서 채색하고 흑선(黑線)으로 윤곽을 돌린 후 판에 붙이고 윤을 내어 사슴뿔 가루를 사슴가죽에 묻혀 경계선을 마무리 지었는데 화각은 표면에 광이 있고 채색이 잘 벗겨지지 않아 많이 애용되었다.⁷⁾



도6. 퇴침
(출처: 석주선기념관)



도7. 장침(長枕)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도8. 골침(絹枕)
(출처: 석주선기념관)



도9. 곡침(繡枕)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도10. 죽침(竹枕)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도11. 흑칠목침함(黑漆木枕函)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7) 권영선, "조선조 수침에 관한 연구-베갯모 문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12

2. 전통 베갯모의 이론적 고찰

1) 베갯모의 일반적 특징

베갯모는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이며 조그만 널조각에 자수를 놓은 형 겹을 덮어씌우거나 화각을 대는 것⁸⁾을 말한다.

베갯모의 형태는 원형(圓形)과 사각형(方形)으로 구분된다. <표 1> 남자의 것은 원형, 여자의 것은 사각형으로 하였는데,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둥근 하늘은 위에 있고, 네모난 땅은 아래에 있다는 동양적 우주론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음양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음양의 조화를 생각하였고, 베개를 단순한 머리를 누이는 물건이 아닌 꿈을 통해 현세와 내세를 잇는 신성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좋은 꿈을 꾸고 그 꿈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의 문양에도 벽사(辟邪)와 주술적(呪術的)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표1. 베갯모의 형태 분류

구분	특징	사진
원형	둥근 베개 마구리로 사용유 물에서 가장 많이 보임 주로 남성용 베개에 사용	
방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러면에 다양한 수를 놓아 하나로 조 합하여 만듦	
정방형	둥근 베개 마구리로 사용 주로 여성용 베개에 사용	

8) 김영수,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p198.

베갯모의 소재는 자수(刺繡), 목각(木刻), 나전(螺鈿), 옥석(玉石) 등이 사용되었다. <표 2>

최초의 베갯모는 소지(素地)인 채로 만들어지던 것이 차츰 장식의욕에 따라 거기에 의장(意匠)이 더해져 선택되는 여러 가지 소재에 따라 전문적인 기능자들이 참여하면서 다양화되었다고 짐작된다.⁹⁾

소재와 장식 기술은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왕실에서 사용하던 베개는 문양의 표현이 더 정교하고 세련되었다.

특히 수침(繡枕)의 경우는 수를 놓을 때 사용하는 수본(繡本)을 전문 화공이 그렸고, 자수는 수방(繡房)상공에 의해 제작되어 서민용 베개에 비해 솜씨가 더 정교하였다. 그리고 자수에 사용된 색실도 화려한 금사, 은사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더했고, 문양의 구도 짜임새도 서민용에 비해 세련되었다.

표2. 베갯모의 소재별 분류

구분	사 진	구분	사 진
목각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나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석제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화각	 (출처: 숙대박물관)
도자	 (출처: 명지대박물관)	자수	 (출처: 자수문양)

9) 김난경, “조선시대 베갯모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11.

그러나 형태와 사용자의 신분 차이에 관계없이 베갯모 문양은 자는 동안 좋은 꿈을 꾸고 가족의 건강, 행복, 자손번성, 부부화목, 부귀를 기원하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은 공통점이다.

현존하는 베갯모 유물은 비단색실을 이용한 자수 베갯모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근대에 오면서 수침(繡枕)이 대중화되었고, 전통베갯모 수베갯모를 연상할 만큼 일반화가 되었다.

2) 베갯모의 문양 분류와 상징성

베갯모의 문양은 그 시대의 공예품에 표현되었던 문양과 같이 대부분 자연을 소재로 하였으며, 예로부터 부부화목(夫婦和睦), 자손번성(子孫繁盛), 장수(長壽), 강녕(康寧), 부귀(富貴) 등을 상징하는 상서(祥瑞)로운 동물이나 꽃, 문자 등으로 표현하였다.

베갯모의 문양은 크게 동물문(動物紋), 식물문(植物紋), 기하문(幾何紋), 길상어문(吉祥語紋) 등으로 분류한다.

(1) 동물문

① 봉황문(鳳凰紋)

봉황은 고대 중국에서 상서로운 새로 여겨지던 상상의 새이다. 수컷을 봉이라 하고, 암컷을 황이라 한다. 동양인에게 상서로운 새로서 왕가의 상징으로 건축, 공예 등의 문양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베갯모의 봉황문양은 부부혜로(夫婦偕老), 자손번창(子孫繁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었다. <도12>

② 호문(虎紋)

호랑이는 우리나라 단군설화에도 등장하는 영물(靈物)로서 산중의 왕으로 그 위력과 민첩한 동작으로 우리 조상들이 존경하여 산신(山神)으로 숭배하던 존재이며 민간에서는 호랑이가 용맹하고 위엄이 있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모습과 함께 병을 막아주고 복의 기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믿어져왔다.¹⁰⁾

호랑이 문양은 남성미를 상징하지만 베갯모는 원형과 방형에서 모두 보인다.

<도13>

③ 원앙문(鴛鴦紋)

10)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p.40

원앙은 오리과에 속하는 물새이며 자웅(雌雄)이 떨어지지 않고 늘 같이 사는 습성이 있어 예로부터 화목한 부부에 비유하여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④ 학문(鶴紋)

학은 십장생(十長生) 중의 하나로 상서로운 새이다. 천년 이상을 장수하고 고귀한 품위를 나타내고 있어 선조(仙鳥)라고도 하였다. 장수, 행복, 길운(吉運)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학 문양을 우아하고 품위 있게 표현하였다. <도14>

⑤ 기린문(麒麟紋)

기린은 용, 거북, 봉황과 함께 사령(四齡)의 하나로, 수컷이 기(麒)이고 암컷이 린(麟)이다. 용이 땅의 말하고 결합하여 낳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마에 뿔이 하나 돌아 있으며 사슴의 몸에 소의 꼬리, 말과 같은 발굽과 네 개의 다리 앞쪽에 화염 모양의 갈기를 달고 있는 동물로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¹¹⁾

조선시대에 사용된 기린문양은 왕실 종친이 사용하였던 문양이다.¹²⁾ 때문에 벼갯모의 문양은 문헌에만 확인될 뿐 수침(繡枕) 유물 중에서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중화된 문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압문(鴨紋)

오리과에 속하는 새의 총칭으로 연꽃과 같이 조화를 이룬 연화쌍압(蓮花雙鴨) 문양은 여성을 위한 공예품 장식에 애용되었다. <도15>

⑦ 호접문(胡蝶紋)

나비문양은 부부의 행복, 남녀 간의 사랑 등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의미로 조선 시대에 와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도16>

⑧ 편복문(蝙蝠紋)

편복은 박쥐를 뜻하며 편(蝠)은 복(福)과 동음(同音)이라 하여 예로부터 행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다남(多男)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도17>

11)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p.38.

12)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재, 1971, p.659.



도12. 봉황문(鳳凰紋)
(출처: 자수문양)



도13. 호문(虎紋)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도14. 학문(鶴紋)
(출처: 자수문양)



도15. 압문(鴨紋)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도16. 호접문(胡蝶紋)
(출처: 자수문양)



도17. 박쥐문(蝙蝠紋)
(출처: 자수문양)

(2) 식물문(植物紋)

① 모란문(牡丹紋)

우리나라에서 모란꽃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의 선덕여왕(善德女王)조의 기록에 처음 나타나는데, 당시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홍색·자색·백색의 삼색 모란꽃을 그린 그림과 씨앗 3되를 보내오면서 모란꽃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¹³⁾고 한다. 모란은 예로부터 부귀(富貴)를 상징하고 유연한 부드러운 곡선과 풍성한 아름다움 때문에 식물문양 중 가장 많이 애용되던 문양이다. 모란문은 배꽃모 전면에 풍성하고 유연한 곡선으로 활짝 핀 꽃송이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 <도18>

② 연화문(蓮花紋)

연꽃은 꽃 중의 군자(花中君子)로 일컬어지며 길상(吉祥)의 의미로 불교에서는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상징한다고 한다.¹⁴⁾ 연꽃의 꽃은 미(美), 열매는 진(眞), 줄기는 성(聖)을 의미하며, 향기가 맑고 곧게 서있는 모습은 고귀한 것으로 여겨 부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며 연화의 연자는 연생(連生) 즉

13)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미술문화, 1995, p.345.

14) 황호근, 「한국 문양사」, 열화당, 1978, p.123.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 는 의미를 지녔다.¹⁵⁾ <도19>

③ 국화문(菊花紋)

국화는 겨울이 되기 직전 한량한 가을에 피는 꽃으로 고통과 걱정을 이겨내는 인고와 희생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으로 곧은 선비정신, 여인의 절개, 굳은 의지를 기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도20>

④ 매화문(梅花紋)

매화는 조선왕조의 문장으로 사용되었으며 고결(高潔)과 정절(情節)을 뜻하며 꽃이 형태가 단순하고 아름다워 자주 사용되는 문양이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생태적 특성으로 희망, 회춘, 군자, 절개 등을 상징하는 문양이다. <도21>

⑤ 초화문(草花紋)

초화는 사실적인 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대부분 야생화를 화면 가득 표현함으로써 생명의 활력을 느끼게 하고, 색감이 경쾌하고 조화롭다. <도22>



도18. 모란문
(출처: 자수문양)



도19. 연화문
(출처: 자수문양)



도20. 국화문
(출처: 자수문양)



도21. 매화문
(출처: 자수문양)



도22. 초화문
(출처: 자수문양)

(3) 길상어문(吉祥語紋)

길상어문은 길상적(吉祥的) 의미를 가진 한자를 도안화하여 수를 놓고나 조각

15)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미술문화, 1995, p.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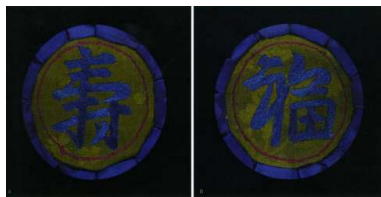
하여 장식한 것이다. 희(喜), 복(福), 장수(長壽), 다남(多男), 부귀(富貴), 영화(榮華), 강녕(康寧) 등의 한자를 장식하여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① 수(壽)·복(福)紋

수(壽)·복(福)紋은 한자 뜻 그대로 오래 살고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장식하였다. 글자만 단독으로 시문된 것보다 테두리에 아자문, 박쥐문 등과 함께 장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23>

② 쌍희문(雙喜紋)

쌍희자 문양은 용호상희(龍虎相喜)를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였다. 쌍희자는 음양의 화합을 이상으로 여기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¹⁶⁾ 희자문도 수복자문과 같이 중앙에 배치하고 주변을 박쥐, 구름 등의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도24>



도23. 수복문
(출처: 자수문양)



도24. 쌍희문
(출처: 자수문양)

(4) 기하문(幾何紋)

① 칠보문(七寶紋)

칠보문은 화목과 번영을 뜻하는 문양이다. 원래 칠보라는 말은 불교의 일곱가지 지켜야 할 도(度)에서 유래 되었으며 칠보는 금(金), 은(銀), 유리(琉璃), 파리(玻璃), 호박(琥珀), 마노(瑪瑙), 산호(珊瑚)를 의미한다.¹⁷⁾

이 문양은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고려 말에 거쳐 조선 초에 이르러서는 칠보문양 자체가 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비들의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여인들이 사용하는 실용품,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다른 길상문양과 혼성되어 사용되었다.¹⁸⁾

16)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p.111.

17) 황호근, 「한국문양사」, 열화당, 1978, p.247.

베갯모에도 길상어문과 함께 장식되었다. <도25>

② 태극문(太極紋)

태극문은 음양(陰陽)의 이기가 태극의 일원(一元)에서 생성했다고 하는 중국 고대의 사상으로, 만물이 생성 전개되는 근원이라 한다.¹⁹⁾ 태극은 보통 2~3가지 색으로 나누어지는데 빨간색은 태극의 동적인 상징이며 푸른 부분은 창조, 화합, 단결, 조화를 의미한다.²⁰⁾ <도26>

③ 팔괘문(八卦紋)

팔괘는 행복의 상징으로 중국의 복희씨(伏羲氏)가 지었다고 하여 역효문(易爻紋)이라고도 한다. 팔괘는 온갖 천지 만물의 현상과 형태의 기본이 되는 여덟 가지를 나타낸 일종의 기하학적 상징부호라고 할 수 있다.²¹⁾

④ 뇌문(雷紋)

뇌문은 아자문(亞子紋)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와서 주로 쓰인 문양이지만 사용빈도가 많이 나타난다.²²⁾ 아자문은 중심이 되는 문양이 아니라 대부분 테두리를 장식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도25. 철보문
(출처: 자수박물관)



도26. 태극문
(출처: 국립고궁박물관)

(5) 복합문

복합문이란 여러 종류의 문양들이 복합되어 어떠한 의미를 함께 상징함으로써 단독문양이 지닌 단순한 의미보다 이미지 전달에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²³⁾으로 베갯모의 문양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18) 신민,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1, pp.4~5.

19) <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20) 신민,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1, pp.7.

21) 황호근, 「한국문양사」, 열화당, 1978, p.102.

2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관」, p.329.

가장 대표적인 문양은 십장생문(十長生紋)이다. 십장생은 해(日), 달(月), 구름(雲), 산(山), 수(水), 신선(神仙), 사슴(鹿), 학(鶴), 거북(龜), 소나무(松), 대나무(竹), 불로초(不老草)를 포함하며, 십장생 문양은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담아 장식하였다. <도27> <도28> <도29>



도27. 칠보장생문(七寶長生紋) 도28. 십장생문(十長生紋) 도29. 십장생문(학과 소나무)
(출처: 자수박물관) (출처: 자수문양) (출처: 자수문양)

3) 베갯모의 조형적 특성

(1) 형태와 표현기법

베갯모의 형태는 크게 사각형과 원형으로 제작되었다. 크기는 평균적으로 원형의 지름과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0~15cm이다.

재질별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목제 베갯모는 나무판에 양각이나 음각으로 조각하거나 투각하였다. <도30>

나전(螺鈿), 화각(華角) 베갯모는 중심부분에 자개나 화각으로 문양을 화려하게 시문하고, 나무판 둘레에 구멍을 뚫어 베개 마구리에 꿰매었다.

도자 베갯모는 백자에 청화로 그림을 그리고, 석제는 상감(象嵌)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자수베갯모는 조선시대이후에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형태나 문양의 종류는 다른 재질과 동일했다. 조선시대에는 직물베개가 일반화되면서 베갯모 또한 직물에 자수를 놓은 베갯모가 대중화되었고, 수를 놓은 베갯모 테두리에 단을 대어 베개 마구리에 직접 이어 붙였다.

자수는 수본(繡本)에 의해 제작되었고, 직물 뒷면에 종이를 덧대어 견고함과

23) 권영선, "조선조 수침에 관한 연구: 베갯모 문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5, p39

실용성을 더했다.

베갯모의 표현방식은 네모와 원형의 작은 면에 상서로운 동물이나 꽃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거나 단순한 모양으로 도식화하여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다양한 자수기법(刺繡技法)에 의해 사물의 질감, 명암, 입체감 등을 나타내었다. 자수의 기법은 면을 메우는 수와 선을 잇는 수가 사용되었다. 자수 베갯모에 사용된 자수 기법을 정리하면 <표 3> 과 같다.

그러나 표현방식이나 표현하는 문양은 같아도 자수기법이나 색실의 조화로 그 시대의 제작자이며 작가였던 궁중의 전문적인 장인이나 일반 서민층의 부녀자들의 예술적인 감각과 표현에 대한 욕구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



석제(상감)



목제(투각)



목제(조각)



목제(조각)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나전(螺鈿)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화각(華角)

(출처: 숙대박물관)



백자(청화)

(출처: 명지대박물관)



자수

(출처: 자수문양)

도30. 베갯모의 다양한 표현 기법

표3. 자수베갯모에 사용된 자수 기법

기법	용도	사진
평수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 작은 면을 메우는데 사용 디자인 방향에 따라 사선평수, 수직평수, 수평평수가 있음	
자련수	평수보다 큰 면을 메우는데 사용 땀의 길이를 조절하여 명암을 나타냄	
징금수	종이끈을 금박지로 감싸 천위에 놓고 문양을 만든 후 금실, 은실로 천위에 고정시켜주는 기법	
이음수	잎의 줄기, 나뭇가지 윤곽선을 나타내는 선을 표현하는 기법	
가름수	양쪽으로 갈라져 사선방향으로 수놓는 기법 작은 잎을 표현할 때 사용됨	
솔잎수	소나무 잎을 표현할 때 사용됨 부채 모양으로 꼭짓점을 향해 수놓는 기법	
매듭수	실을 매듭지어 점으로 표현하는 기법 꽃, 열매, 동물의 눈을 생동감있게 표현	
속수	수를 놓기 전에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솜, 실, 종이 등을 넣어 양감을 표현하는 기법	

(2) 구도

베갯모의 구도는 작은 사각형과 원형의 화면 안에 주요 문양이나 문자를 조각하거나 수를 놓는 단순한 구도와 주요 문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테두리 문양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구도 등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문양의 배치는 대부분 대칭형이지만 그림을 그리듯 자유롭게 배치하여 회화처럼 표현되기도 하였다.

(3) 색채와 기교

베갯모에 사용된 색채는 한국 전통 색채인 오방색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이 사용되었다. 이는 조선시대의 복식과 도자기 등 공예품의 절제된 무채색에 반해 인간의 본연의 아름답게 꾸미고 타인에게 보이고자하는 욕구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베갯모의 재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목재나 석재에 비해 직물이나 화각, 나전으로 된 베갯모의 색상이 보다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에 대중화된 수(繡)베갯모를 보면 바탕색은 주로 홍색(紅色)이 사용되었는데 궁중에서 제작된 베갯모의 경우는 오방색의 중심색인 황색과 간색인 보라색도 사용되었다. 색상의 조화는 단순하게 단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채로운 색실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분위기도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재료와 기교면에서는 신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궁중에서 만들어졌을 것은 금사, 은사, 화려하고 다채로운 수실을 사용하여 더욱 화려함과 위엄이 돋보인다. 민가에서 사용하던 공예품이나 전통 자수는 다채로운 색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교면에서는 다소 떨어졌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신분제도의 혼란과 수공업의 발달로 일반계층도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예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장식예술이 더욱 화려해지고 대중화되었다.

Ⅲ. 황칠(黃漆)과 황칠나무 염색

1. 황칠(黃漆)의 일반적 고찰

1) 황칠의 일반적 특징

황칠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교목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도서지역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한국고유수종이다. 국제 학명은 덴드로파낙스(Dendropanax morbiferus: 만병통치나무 또는 만병통치약)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높이는 15m에 달하고 어린 가지는 녹색이며 털이 없다. 잎은 3~5개로 갈라진 오리발모양, 달걀모양, 타원형 등 다양하며, 꽃은 6~8월 중순에 연한 황록색으로 피고 암수한꽃이다. 황칠에 사용되는 나무의 진액은 8 ~ 9월에 채취하는데, 담황색의 진한 유상액체(油狀液體)로서 상쾌한 향기를 지니며 맛은 쓰다.

황칠 안에 들어있는 정유는 그 주성분이 세스퀴테르펜(Sesqui-terpene)이며, 그 밖에 알코올, 에스테르 등이 함유되어 있다.

황칠은 예로부터 전통 수지도료(樹脂塗料)로 가치를 인정받았고, 고유의 안식향(安息香)을 함유하고 있어 약용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도31. 황칠나무와 잎모양

도32. 황칠 분비 모습

2) 황칠의 역사

황칠(黃漆)은 고대에는 금칠(金漆)이라 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고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황칠에 대한 첫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本紀) 보장왕4년(645)조에 나온다. “이해 봄 당 태종은 명장 이세적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요동성을 공격하여 12일 만에 함락시킨다. 이 작전에 백제는 금 옷칠을 한 갑옷을 바치고 군사를 파견하였다. 태종이 이세적과 만날 때 갑옷의 광채가 햇빛에 번쩍거렸다.”²⁴⁾라고 적고 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도 “좌랑(佐郎) 이행검(李行儉)을 원 나라에 보내어 황칠(黃漆)을 바쳤다.”²⁵⁾

고려도경(高麗圖經)의 “고려의 나주(羅州 지금의 전라도)에서는 백부자(白附子), 황칠(黃漆)이 나는데 모두 조공품(租貢品)이다.”²⁶⁾라는 기록과 이수광(李睟光, 1563~1628)이 저술한 지봉유설(芝峰類說) 권19 복용부(服用部)에 “고려의 황칠이 섬에서 나는데, 6월에 칼로 찢어서 즙을 채취한다. 색깔이 마치 금과 같으며, 햇빛에 쬐면 마른다. 본디 백제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절강(浙江)사람들이 신라칠(新羅漆)이라고 부른다.”²⁷⁾라는 기록으로 보아 한국의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고 조공품의 목록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李穡)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통전(通典)》²⁸⁾에, “백제(百濟)는 바다 가운데 삼도(三島)가 있는데 황칠(黃漆) 나무가 저절로 생겨난다. 6월에 그 즙을 내어서 그릇에다 칠하면 황금빛처럼 된다.” 고 하였다. 이는 지금의 황칠(黃漆)이란 것인데, 오직 제주(濟州)에서만 생산된다. 이 삼도는 바로 제주의 칭호이고, 또 어떤 이는, “섬 가운데 삼좌산(三座山)이 있기 때문에 삼도라고 한다.” 하기도 한다. “²⁹⁾고 기록하고 있어 황칠나무가 제주도에 자생하는 나무

24) ‘百濟上金髹鎧 又以玄金爲文鎧 土被以從 帝與勳會 甲光炫日’

25) 제20권 충렬왕(忠烈王)2년, 遣佐郎李行儉, 如元進黃漆

26) 제23권 잡속(雜俗)2, 羅州道。出白附子, 黃漆。皆土貢也。

27) 鷄林志曰 高麗人善染采 紅紫尤妙云 今紫色猶勝於中國 又曰高麗黃漆生島上 六月刺取 號新羅漆 一統志亦載朝鮮土產

28) 통전: 옛날부터 당(唐) 나라까지 역대의 제도를 수록한 일종의 법전. 당 나라 두우(杜佑)가 지었음.

29) 권지20 경사문(經史門), 通典云百濟海中有三島出黃漆樹六月取汁柒器物若黃金此乃今之黃漆而惟濟州產此物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황칠의 우수성은 삼국시대부터 중국에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나 생산되는 양이 극히 적고 조공품이나 진상품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 백성들이 인위적으로 베어버렸다는 기록도 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8년(1794) 12월25일 기록을 보면 “완도는 바로 황칠(黃漆)이 생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본도의 감영·병영·수영 및 본도의 지방인 강진·해남·영암 등 세 읍에다 모두 연례적으로 바치는 것이 있고 왕왕 더 징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나무의 산출은 점점 전보다 못한데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 관에 바칠 즈음에는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날로 더 많아지니 실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람의 재해를 입은 후에 큰 나무는 또한 말라 죽은 것이 많고 겨우 어린 나무 약간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황칠(黃漆)은 또한 기물의 수요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마땅히 배양하고 심고 가꾸어 국용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을 한정하여 영과 읍에 으레 바쳐오던 것을 아울러 감면하여 오래 자라는 실효가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옛날 상태를 회복하여 규례대로 납부하게 된 뒤라도 과외로 징수하는 폐단은 엄격히 조목을 세워 일체 금단해서 영원히 섬 백성들의 민폐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³⁰⁾라고 하여 위 내용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3) 황칠의 약용(藥用)

황칠은 학명인 덴드로파낙스(Dendro panax morbiferus: 만병통치나무 또는 만병통치약)에서 보듯 예로부터 여러 가지 약리 효능이 있었음을 고대 문헌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도 약리효능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황칠의 약리효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사전에 보면 “황칠은 제주도에서 나는 누런 빛깔의 칠, 황칠나무의 진으로 만든다.” 고 수록한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황칠은 제주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의 진으로 알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則三島者即濟州之稱又或島中有三座山而云爾也

30) 莞島黃漆, 限十年除滅事, 今因營邑誅求, 乃以所產之地, 反有難繼之憂, 寧不寒心乎? 營邑所納, 一竝限十年權減, 雖於十年之後, 以其間長養之如何及嚴立科條之如何, 論報本司, 然後始許復舊爲宜

이원진(1575~1617)이 쓴 「탐라지(耽羅志)」³¹⁾에 “安息香 곧 黃漆木의 汁 “이라는 기록과 중종 38년(1543)년에 간행된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 猪染疫病治療方)」³²⁾에 “제주에서 나는 것인데 이름을 황칠이라 하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붉나무 진이라고 한다. ³³⁾... (소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기 위하여) 한 처방문에 소외양간에 황칠이나, 두해 묵은 삼주 뿌리를 불에 태워 그 냄새를 코에 들이마시게 하면 즉시 좋아 진다”는 기록에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황칠의 향을 안식향이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약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 연구논문³⁴⁾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 황칠나무 염색

황칠은 예로부터 염료보다는 황금색 칠(漆)도료로써 뛰어나고 귀한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2006년 경주국립문화재연구소는 침성대 인근 제사터 유적에서 출토된 도기 5점 중 1점을 적외선분광분석을 통해 1400년 만에 딱딱하게 굳은 황칠 덩어리를 확인하게 되었고³⁵⁾ 최근 서해안 영흥도 부근 바다 속에서 인양된 교역선에서 실려 있던 유물 중 황칠이 들어 있던 토기병이 출토되어 고대로부터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까지 황칠이 교역품 중의 하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³⁶⁾

그러나 황칠나무의 고갈과 황칠의 희귀성으로 인해 황칠 공예는 거의 사라져 문헌에서만 확인되었으나, 최근에 황칠나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아지면서 황칠나무의 약리효과와 황칠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31) 『탐라지(耽羅志)』는 이원진이 제주목사[1651~1653]로 있을 때 고증할 문헌과 지도 등이 없어, 『여지승람』과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에서 주요 내용을 간추리고 제영(題詠) 등을 수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사찬 읍지이다.

32) 중종 38년(1543)년에 간행된 조선시대 가축의 치료법을 기술한 수의학서이다.

33) 安息香 [産濟州者, 名曰黃漆, 産此土者, 名曰火乙叱羅毛津]

34)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황칠나무의 기능성 및 약리 효과”, 2009

35) 연합뉴스, 2007년 2월 8일자 보도자료

36) 연합뉴스, 2014년 9월 18일자 보도자료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의 잎을 이용하여 다양한 염색을 시도하여 염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작품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염색 과정은 염색 → 매염 → 수세(水洗) → 건조 순서로 하는 후매염으로 하였으며, 황칠나무 잎은 7월에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작품의 주제인 안식을 표현하기 위한 편안하고 안정된 색감을 얻기 위해 세종류의 매염제 양을 달리한 염색실험과 다른 염료(染料)와의 복합염색의 횟수를 달리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매염제는 알미늄(명반), 초산동, 철매염제 세 종류를 사용하였고, 양은 직물 무게의 1, 3, 5%로 하였다.

매염제에 따른 황칠나무 염색의 색상변화를 보면 <표 4> 과 같다.

표4. 황칠나무 염색 색상표



황칠나무와 다른 염료의 복합염색은 꼭두서니, 녹엽(綠葉), 코치닐 염료를 사용하였다. 매염은 명반 5% 매염제를 사용하였고, 염색 횟수는 1~3회 실시하여 다양한 색상 실험을 하였다.

황칠나무 복합염색의 색상 변화를 보면 <표 5> 와 같다.

표5. 황칠나무 복합염색 색상표



이 실험 결과 황칠나무 염액(染液)의 색은 노랑색 계열이며 매염제에 따라 녹색과 카키색 계열의 색상을 나타냈다.

다른 염료와의 복합염색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오방색과 간색에 대비해 황칠나무의 노랑색이 가미되어 보다 안정감이 있고 깊이감이 있는 색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IV. 현대 베갯모의 디자인 경향

18C 산업혁명 이후 제품의 공장제 대량생산과 디자인 혁명은 국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국내의 가내 수공업은 서구의 기계문명의 도입으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변화되었고, 디자인 또한 서구의 디자인이 우위를 점하면서 전통적인 문양이나 기술은 외면당하고 기능과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범세계적으로 서양문화의 우월주위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면서 국가마다 자문화(自文化)를 되찾고자하는 문화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흐름은 국내로 이어지며 ‘한국적인 것’, ‘전통적인 것’에 대해 재조명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전통적인 문양과 형태를 응용한 새로운 현대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디자이너에 의한 제품 디자인과 함께 소수의 일반인에 의한 기능적이면서 심미안적인 디자인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통 공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

사람이 가장 밀접하게 사용하는 침구류도 변모하여 서구적인 침대생활에 맞는 침구(寢具)가 대중화되어 과거의 좌식생활에 사용하던 침구류는 조금씩 소외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부흥과 함께 현대적인 한국적 디자인과 작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전통 베갯모를 응용한 현대적인 디자인은 학술 연구, 기존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 전통 공예 수강생들의 작품, 회화 작가의 디자인 작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학술 연구

학술 연구로써는 전통 베갯모에 관한 학술 연구는 대부분 베갯모의 전통문양 연구 중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특히 조선시대 자수 베갯모 문양에 집중되고 있다.

베갯모 관련 도록은 김길성은 개인이 30년간 수집한 베갯모와 떡살 문양을 모아 「민간전통 자수베갯모」³⁷⁾라는 단행책자를 발간하였고, 허동화는 한국자수

37) 김길성, 「민간전통 자수베갯모」, 삼성문화인쇄(주), 2001

박물관 소장품 중 베갯모를 모아 「이렇게 소담한 베갯모」 38)라는 도록을 발간 하였다.

김난경39), 정영진40), 권영선41)은 석사학위논문에서 조선시대 베갯모를 중심으로 전통 문양을 연구하였고, 박지연42)은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 베개의 분류와 베갯모의 문양에 대해 다루었다.

전소연43)과 고지봉44)은 자수베갯모의 문양을 응용하여 디자인 작품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인숙은 작품 논문에서 전통 베갯모가 가지고 있는 형과 색, 문자를 재구성하여 쉼(休)의 의지를 담은 작품을 표현하였다. 45)

2) 브랜드 제품 디자인



도33. 현대 보료와 사방침
(출처: www.gsbshop.com)



도34. 색동문양을 응용한 침구
(출처: 박홍근홈패션)



도35. 꽃문양을 응용한 침구
(출처: 규수방)

38) 허동화, 「이렇게 소담한 베갯모」,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2009

39) 김난경, “조선시대 베갯모 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73

40) 정영진, “조선조 자수문양에 관한 연구: 베갯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0

41) 권영선, “수침에 관한 연구: 베갯모 문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42)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43) 전소연, “조선시대 자수베갯모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레이저 컷팅기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44) 고지봉, “조선시대 민간자수베갯모의 문양을 이용한 문화상품연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기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45) 김인숙, “쉼(休)을 위한 작품 연구;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베갯모의 개념과 형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2



도36. 꽃자수 베개
(출처: (주) 아프리앙)



도37. 나비자수 베개
(출처: 지란)



도38. 모란, 나비자수베개
(출처: 하늘누에)

현대의 한국적 디자인 침구를 살펴보면 색상은 전통적인 오방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드럽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파스텔톤으로 변화되었다.

베갯모의 문양은 전통문양의 이미지와 서구의 디자인이 접목된 세련되고 변화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3) 작가 작품

회화작가의 작품으로는 고선희 작가의 전통 수베갯모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옷칠한 바탕종이 위에 동양화 채색물감을 이용하여 전통 베갯모의 꽃수를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도39. 작가 고선희의 작품
(출처: 매일신문 2013. 6.28자)

V. 작품제작 및 설명

1. 제작 배경

사람에게 ‘쉽’ 그리고 ‘잠’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안식(安息)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겼으며 특히 조상들은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베개를 귀하게 여겼고, 벽사와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한 문양을 베갯모에 수놓아 간절한 바람을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관습과 디자인은 세월이 지나면서 서구적인 디자인과 기계적인 문명에 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베갯모의 행복을 기원하는 바람과 동양적인 철학사상이 깃든 사각형과 원형의 형태를 모티브로 작품 제작에 반영하고자 한다.

작품제작에 사용할 색상은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 잎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연염색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예로부터 황칠나무는 안식향(安息香)을 내뿜어 마음을 진정시키고 온화하게 하는 약리효능이 있으며, 황금색 안료(顔料)로써 가치를 인정받았으나 염료(染料)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에 자연염색에 사용된 염재(染材)가 대부분 약리효능과 방충 방부 효과가 뛰어난 약용식물이므로 황칠나무도 염재로써의 가능성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

작품 표현 방법은 황칠나무가 갖고 있는 안식향(安息香)이라는 내재적 요소를 황칠나무 잎의 다양한 조형으로 표현하고, 전통 바느질과 자수 기법을 응용하여 선과 면의 표현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제주도 자생식물인 황칠나무를 이용하여 염색을 진행하여 염재(染材)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가족의 평안함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졌던 베개의 베갯모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하고자 한다.

2. 제작 과정

작품 제작과정은 작품 스케치 → 밑그림 → 직물 염색과 푸새 → 재단 → 바느질 순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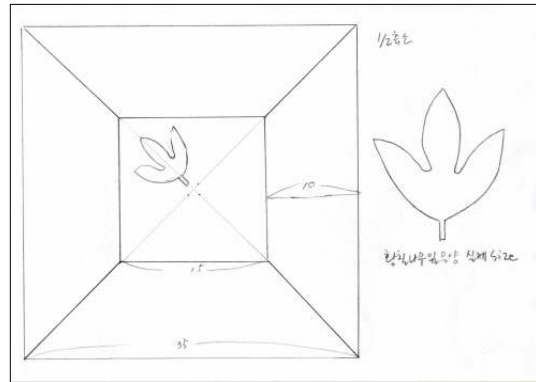
1) 작품 밑그림

완성된 작품의 전체적인 색 배색과 분위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색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작품에 필요한 정확한 재단을 위해 밑그림을 그린다.

스케치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직물 색상의 조합과 배색, 채도와 명도를 결정하고, 밑그림을 바탕으로 직물을 재단한 후 사용할 실의 색상과 굵기 등을 실제 직물과 대비하면서 결정한 후 바느질을 시작한다.



도40. 작품 스케치(안식 2)



도41. 작품 밑그림(안식 2)



도42. 직물 재단(안식 2)



도43. 완성작품(안식 2)

2) 식물 염색과 푸새

작품제작에 사용되는 식물은 전통적인 견직물인 명주를 사용하였다.

명주는 자연염색을 했을 때 가장 발색이 좋고

작품 제작에 사용된 황칠나무 염색 기본적인 조건은 <표 6> 과 같다.

표6. 황칠나무 염색 조건

염색조건		용량	비고
염재		500g	잎과 가지
물		5L	
직물		210g	명주
염액가열 시간		30분	2회
염액 온도		40℃	
염색 시간		20분	
매염 시간		20분	
매염 온도		40℃	
매염	명반	3.5g	직물무게의 5%
	동	0.7g	직물무게의 1%
	철	0.7g	직물무게의 1%

황칠나무 염색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황칠나무 잎과 가지 500g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 5L에 넣고 끓인다.
- ② 염액은 30분 정도 끓인다. 1차, 2차 염액(染液)을 섞어서 사용한다.
- ③ 1차 염색은 정련한 명주 210g을 침염(浸染) 20분정도 실시하고, 세척 후 3등분하여 각 매염제 용액에 넣어 매염한다.
- ④ 매염은 20분정도 실시한 후 매염제가 직물에 남아있지 않도록 수회 행군다.
- ⑤ 건조시킨다.
- ⑥ 염색이 완료된 직물은 바느질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순수 전분풀을 이용하여 푸새하여 준비한다.



도44. 정련한 명주



도45. 염재 세척후



도46. 염액 추출(30분)



도47. 염액



도48. 염색하기



도49. 건조(무매염)



도50. 매염제 만들기



도51. 매염하기



도52. 매염 후 세척하기



도53. 염색 완료

3) 재단과 바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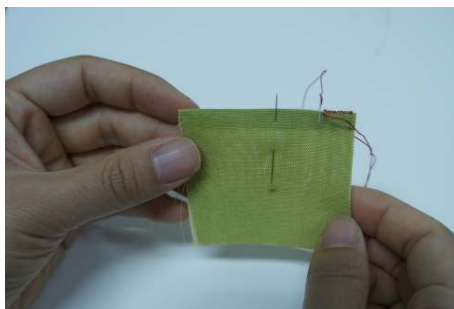
푸새한 직물은 작품의 밑그림대로 색깔을 배색하고 재단하였다.

작품 표현기법은 전통 베갯모의 문양을 응용하여 안식을 표현하기 위해 황칠 나무 잎을 다양하게 조형화하였다. 그리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 서양 퀼트의 아플리케 기법을 이용하였다.

바느질과 자수는 전통 바느질과 자수 기법을 응용한 감침질과 징금수, 이음수 등을 사용하였다.

색실은 다양한 색상의 견사(絹紗)를 이용하였고, 징금수에는 금사와 은사를 이용하였다.

섬유로 된 작품을 고정시키기 위해 전분풀을 이용하여 뒷면에 한지로 배접을 하였다.



도54. 바느질하기



도55. 배접하기

3. 작품 설명

안식(安息) 1

제주도의 자연은 색의 변화로 감동을 준다. 특히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림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준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새벽에 바라보는 한라산의 색은 보랏빛 기운이 감돈다. 마치 신비로운 분위기속에 나무들은 새 봄에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는 듯 느껴진다.

예로부터 보라색(Purple)은 왕의 색이며 우주를 상징한다.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슬픔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붉은 기운을 가진 보라색은 한편으로 두려움을 해소하고 불안을 정화시켜주는 색이다. 본 작품은 이러한 의미성을 담고 제작하였다.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은 사각형의 조각 잇기 사이에 황칠나무 잎을 조형화한 부드럽고 율동적인 곡선을 삽입하여 엄격하고 견고한 수직적인 사각형의 구성 속에 변화를 주었다. 면과 면을 조각 잇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바느질 선은 빨간색 실크실로 걸감침질하여 도드라지게 표현함으로써 면과 면의 대비 속에 선을 하나의 독립된 조형요소로 표현하였다. 중심 원 안에 솜을 넣어 입체감을 주었다.

황칠나무와 녹엽, 황칠나무와 꼭두서니를 복합 염색한 명주 위에 금사 은사를 이용하여 흠질로 둥글게 붙이고 매듭실을 원 테두리에 붙였다.

이것을 보라색으로 염색한 명주위에 오색으로 그라데이션된 실크실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감침질하여 굵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안식(安息) 1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코치닐, 꼭두서니염색

바느질: 감침질과 홈질

크기: 350mm × 3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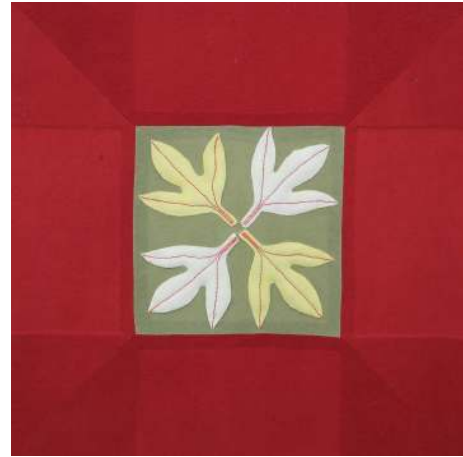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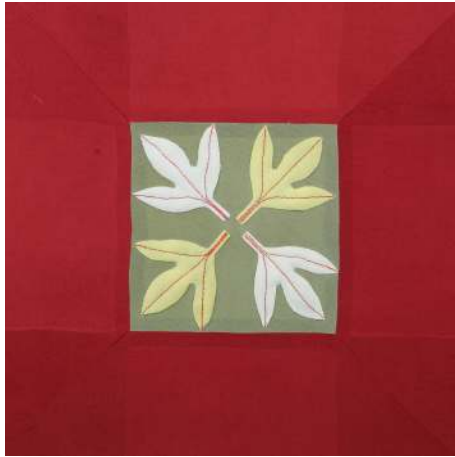
안식(安息) 2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오행 중 토(土)의 기운과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임금의 색으로 쓰였다. 이 작품에서 노란색은 소색 명주와 대비되어 맑고 깨끗한 느낌을 표현하여 희망과 안전(安全), 동심(童心)을 나타낸다.

숲은 사람들에게 늘 평온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 숲속에서 좋은 향기와 새봄의 맑고 깨끗한 색을 보며 언제나 희망과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 안에 황칠나무 잎을 모티브로 한 패치워크를 대칭으로 배치하여 보이지 않는 원과 하늘을 표현하였다.

황칠나무 염색의 동매염한 명주에 황칠나무 잎을 조형화한 조각을 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안에 숨을 넣어 서양 아플리케 기법으로 입체감을 표현하였다. 그 위에 빨간색 실크실로 굵게 스티치하여 규칙적이지만 동적인 느낌을 나타내었고, 테두리는 소목으로 염색한 붉은 색 명주를 속감침질로 이어 붙였다.



안식(安息) 2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소목 염색

바느질: 감침질과 온박음질

크기: 350mm × 350mm

안식(安息) 3

꿈을 꾸면서 쪽빛 하늘과 바다와 어우러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숲 속을 거닐고 있다. 쪽빛 하늘에 황금색은 더욱 빛난다. 꿈속에서 거닐던 행복한 세상을 현실에서도 계속 영위하고 싶다고 기원한다.

사각형 테두리는 전통적인 베갯모의 사각형과 같은 땅, 세상을 의미한다. 배경색은 쪽염색을 짙게 하였고, 금사와 수실을 이용하여 수놓았다.

테두리는 가는 금사 두줄을 바탕에 엮고, 빨간색 실크실을 이용하여 엮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황칠나무 잎 조형을 배치하고 징금수와 이음수로 수를 놓아 맑고 밝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징금수에 사용된 빨간색 실크실은 배경색인 쪽빛과 어우러져 화면을 더욱 밝은 느낌이 나도록 하였고, 그 외 수실은 하늘색, 노란색, 연두색을 사용하여 맑은 느낌을 더했다.



안식(安息) 3

직물: 명주

염색: 쪽염색

바느질: 정금수와 이음수

크기: 350mm × 350mm

안식(安息) 4

한 여름 숲 속에 들어가면 청량감이 온 몸을 휘감는다. 제주도의 숲속은 어느 때보다 무성하고, 제각각 내뿜는 나무의 향기들이 어우러져 싱그러움을 더한다. 숲속 나무들의 색깔 또한 어느 계절보다 강렬하고 하늘도 짙푸르다.

화면 구성은 황칠나무 잎을 조형화하여 화면의 좌우 균형을 맞추면서 면분할하고 두 작품이 서로 대칭적이고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배경이 되는 부분은 쪽염색과 역새로 염색한 단색 명주를 이용하여 조각 잇기를 하였고, 문양이 되는 황칠나무 잎 조형은 황칠나무 염색과 다른 염료와의 복합염색에서 얻은 다양한 색상들을 이용하여 배색하였다.

황칠나무 잎을 조형화하여 가로 방향의 크기가 다양한 사각형을 빨간색 실크 실로 조각 잇기 하였고, 배경이 되는 면은 세로 방향으로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감침질로 조각 잇기 하여 서로 다른 방향성을 표현하였다.

황칠나무 조형과 배경의 감침질 굵기를 달리하여 바느질 선을 입체감있는 가늘고 긴 면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면과 면을 이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시점은 사각형 면 안에 또 다른 면의 대비를 만들고 있다.



안식(安息) 4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꼭두서니, 메리골드 염색

바느질: 감침질

크기: 400mm × 3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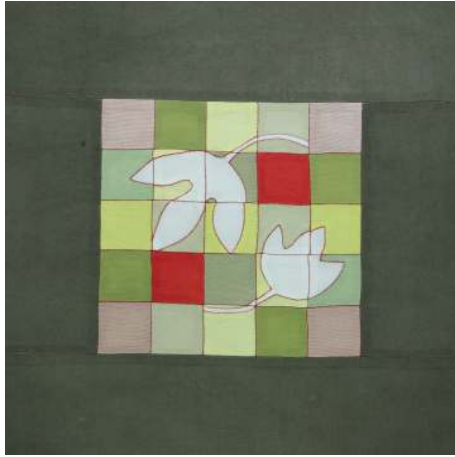
안식(安息) 5

가을이 시작될 때 황칠나무 숲은 무더웠던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차분히 가을을 맞이할 색을 준비한다.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에 황칠나무 잎이 율동적으로 움직이고 강렬했던 햇볕이 누그러지면서 녹색의 잎은 더욱 가라앉는다. 황칠나무 숲속 사이사이로 가을햇빛이 비추면 나무들의 조용히 가라앉은 색의 조합이 아름답다.

사각형의 조각이음과 조화시켜 전통 베갯모의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며, 이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함께 존재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가로, 세로 4cm의 사각형 조각 25개는 감침질로 이어 붙였고, 그 안에 황칠나무 잎을 단순화하여 문양을 자수를 놓듯 감침질로 조각 잇기 사이사이에 이어 붙여 형상화하였다.

큰 잎과 모양이 조금 다른 작은 잎의 줄기를 곡선으로 표현하여 율동감을 주었다.



안식(安息) 5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소목, 역사 염색

바느질: 감침질

크기: 350mm × 350mm

안식(安息)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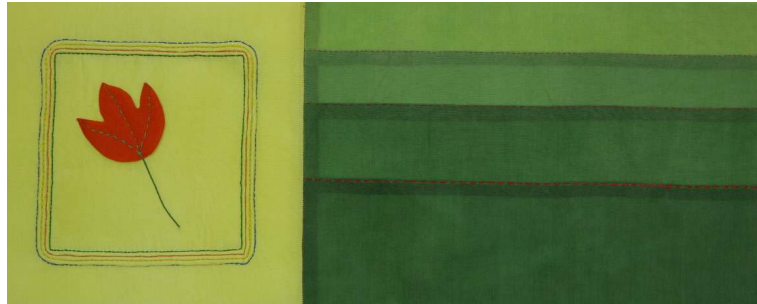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색을 보여준다. 가을의 붉은 색과 초록색은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다.

황칠나무는 상록수이지만 가을이 되면 마치 단풍이 드는 것처럼 홍색으로 물든다. 늘 찬란한 황금색을 몸에 지니고 있는 황칠나무의 짙은 녹색 사이사이에 보이는 홍색 잎은 유난히 붉어 보이고 아름답다.

작품의 색상은 붉은 색과 초록색을 보색 대비하여 색이 더 짙고 돋보이게 표현하였다.

왼쪽의 노랑색 바탕은 황칠나무 염색(명반매염 5%)을 하였고, 사각형 테두리는 전통색실 누비를 응용하였다. 그 안에 모양이 다른 황칠나무 잎의 조형을 오른쪽 부분 색상과 보색으로 배치하였다.

오른쪽 면은 위로 갈수록 점점 옅은 색으로 그라데이션하여 안정된 구도를 나타내었고, 면과 면을 잇는 바느질은 스티치의 굵기를 달리하여 편안함 속에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안식(安息) 6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꼭두서니, 녹엽 염색

바느질: 감침질과 박음질

크기: 500mm × 200mm

안식(安息) 7

겨울에는 누구나 따뜻함을 그리워한다.

이 작품은 따사로운 햇볕이 비추는 날 나무 장작이 타고 있는 벽난로 옆에 앉아서 숲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바탕색은 따뜻함의 대표적인 상징 색인 붉은 색을 사용하였다.

안식을 위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표현하기 위해 꼭두서니 염색에 황칠나무 염색을 하여 채도와 명도를 낮췄다.

그 안에 다양한 황칠나무 잎 문양은 자연 염색한 명주에 한지로 배접하고 압축솜을 대어 붙이고 빨간색 실크실로 굵게 스티치하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또 생동감있는 봄이 온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식(安息) 7

직물: 명주

염색: 황칠나무, 꼭두서니, 쪽염색

바느질: 징금수, 온박음질

크기: 350mm × 350mm

VI. 결 론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마다 편히 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용식물이나 향을 사용한 기록을 문헌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걸 보면 고대로부터 인간에게 ‘쉽’ 과 ‘마음의 안정’ 은 중요했다. 그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수면은 공통적으로 편히 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였고, 잠은 현실과 영적인 세상을 잇는 가교로 여겨 머리를 누는 베개까지도 소중히 다루어졌다.

현대로 오면서 이러한 관념이 점차 퇴색되면서 기능과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의식주의 서구화 경향으로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한국적인 것’ 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국의 문화 찾기 흐름은 국내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통 문화를 접목한 현대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량생산에 의한 대중적인 디자인에 대한 식상함이 생기면서 독특한 제품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고 있고, 점차 전통적인 공예기술을 배워 개성 있는 작품과 제품을 직접 만들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황칠나무를 이용한 염색을 진행하여 염재(染材)로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가족의 평안함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졌던 베개와 베갯모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황칠나무의 염재(染材)로써의 가능성 연구는 여러 가지 매염제의 농도와 염색횟수를 달리한 실험을 통해 노란색 계열의 명도와 채도를 달리한 다양한 색상을 얻었고, 다른 염재(染材)와의 복합염색을 통해 전통적인 오방색을 벗어난 부드럽고 안정된 색감을 도출하였다.

2. 전통적인 베갯모의 행복과 편안함을 바라는 기원과 소망을 표현한 현대적인 베갯모 디자인 연구는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는 황칠나무의 안식향(安息香)이라는 내재적 요소를 황칠나무 잎을 다양하게 조형화하여 제주도적이면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시각적인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3. 베갯모의 현대적인 표현 연구는 평면적인 전통 바느질 기법에 서양 켈트의 애플리케 기법을 접목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견고하고 규칙적인 전통적인 감침질에 황칠나무 잎의 부드러운 곡선을 삽입하였고, 실의 굵기와 감침질의 성김과 조밀함을 달리하여 선(線의) 표현에 변화를 주어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형태적인 면은 단순하고 규칙적인 사각형의 배열과 수평적 면 분할을 통해 통일감과 안정감을 나타냈고, 단색의 배경색은 여유와 확장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자연 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VII. 참고문헌

단행본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한국민속대관」
고려사절요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문양디자인Ⅱ-자수문양」, 대원사, 2004
김길성, 「민간전통 자수베갯모」, 삼성문화인쇄(주), 2001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1998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本紀)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재, 1971
이원진, 김찬흡외, 역주 탐라지, 2007
임영주, 「한국전통문양」, 미술문화, 1995
전라남도보존환경연구원, “황칠나무의 기능성 및 약리 효과”, 2009
제주교육박물관, 탐라지(耽羅志)초본 上下, 2007
종교학 대사전, 한국사진연구사, 1998
허균, 「전통문양」, 대원사, 1995
허동화, 「이렇게 소담한 베갯모」,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2009
황호근, 「한국 문양사」, 열화당, 1978

학위논문

- 고지봉, “조선시대 민간자수베갯모의 문양을 이용한 문화상품연구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기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9
권영선, “조선조 수침에 관한 연구-베갯모 문양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김난경, “조선시대 베갯모 문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73
김인숙, “쉽(休)을 위한 작품 연구 ; 본인의 작품 속에 나타난 베갯모의 개념과 형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2012
박지연, “조선시대 침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신민, “한·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한국공예논총」, 2001

전소연, “조선시대 자수베갯모 문양을 응용한 의상디자인연구 ; 레이저 컷팅기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7

정영진, “조선조 자수문양에 관한 연구 : 베갯모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80

인터넷 사이트

<http://www.encyber.com> 「두산세계대백과」

<http://www.gsbshop.com>

<http://www.portal.nrich.go.kr> 「고고학사전」

규수방

매일신문 2013. 6.28자

박홍근홈패션

아프리아

지란

하늘누에